(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7]
E04H 13/00

(45) 공고일자 2002년09월18일
(11) 등록번호 10-0353310
(24) 등록일자 2002년09월06일

(21) 출원번호 10-2000-0015563
(22) 출원일자 2000년03월27일

(65) 공개번호 특2000-0036715
(43) 공개일자 2000년07월05일

(73) 특허권자 송웅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4동 421-38 B01호

(72) 발명자 송웅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4동 421-38 B01호

(74) 대리인 최평열

심사관 : 김현우

(54) 축조용 돌묘

요약

본 발명은 납골단지를 봉안하는 돌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블럭식으로 여러기를 접속시키거나 다단으로 쌓기에 적합한 축조용 돌묘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돌묘(1)는 상하에 2개의 납골단지 봉안구멍(2)을 뚫어 1기의 돌묘(1)에 부부를 봉안할 수 있도록 하고, 봉안구멍(2)을 밀폐시키는 봉합석(5)의 표면에 비문(6)을 새길 수 있도록 하며, 상기 봉합석(5)은 오랜 세월이 흐르더라도 이탈되지 않도록 봉합석(5)과 밀폐구(2a)에 홈(7a)(7b)을 뚫어 이 홈(7a)(7b)에 밀봉재(8)가 투입 경화되도록 하고, 돌묘(1)의 상부면은 평면부로 하되 테두리부에 안착홈(10a)이 형성된 접속용 홀(10)이 파여지며 상기 안착홈(10a)이 형성된 접속용 홀(10)내에 별도의 접속구(11)가 끼워져 돌묘(11)간의 접속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하므로서 여러기의 돌묘를 접속시킬 수 있고 또한 안전하게 다단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돌묘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낸 돌묘의 분해 사시도.

도 2 는 도 1 의 단면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의 돌묘를 나타낸 단면도.

도 4 및 도 5 는 본 발명의 돌묘를 이용하여 묘를 구축한 상태의 각 실시예를 나타낸 사시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돌묘 2 : 납골단지 봉안구멍 2a : 밀폐구

3 : 납골단지 4a,4b : 오동목판 5 : 봉합석

6 : 비문 7a,7b : 홈 8 : 밀봉재

9 : 사진수납부 10 : 접속용 홀 10a 안착홈11 : 접속구 12 : 봉합내석 13 : 석정반14 : 덮개석 15 : 조각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인의 비문과 고인의 유골이 담겨진 단지를 안전하게 봉안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가족 단위로 여러 고인을 블럭식으로 여러기를 접속시키거나 혹은 다단으로 쌓기에 적합한 축조용 돌묘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히는 납골단지가 넣어져 봉안되는 납골단지 봉안구멍을 덮는 봉합석 자체에 비문을 새겨 넣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오랜 기간 사용하더라도 봉합부의 변형이 없이 고인의 유골을 안전하게 봉안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다수의 고인을 블럭식으로 여러기를 접속시키거나 혹은 다단으로 쌓아 모시는데 적합한 돌묘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에 비하여 묘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정서상 고인의 시신을 관에 넣어 직접 매장하거나 혹은 화장을 하여 매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장묘를 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묘지 면적이 늘어나게 되어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급속히 늘어나는 실정이다.

또한, 그 일부에 있어서는 묘지를 호화스럽게 치장하므로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으며, 호화묘를 꾸미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묘에는 차후 후손들이 고인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비석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비석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을 주게되며, 산사태 등이 발생하여 비석이 묘지로부터 이탈될 경우 누구의 묘지인가를 알 수가 없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본원 출원인은 상기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본원 출원인에 의해 국내실용신안공고 제90-6868호로 제안하여 크게 개선시킨바 있다.

상기한, 종래의 구조는 대략 정육면체형(1변의 길이가 대략 55cm 내외로 됨)으로 된 석재의 내부에 납골단지 봉안용 구멍을 뚫어 이 구멍내부에 납골단지를 넣고, 납골단지의 둘레부에 유골을 습기 및 벌레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목탄등과 같은 수분흡수재를 넣은후 생석회를 반죽시켜 구멍을 막아 경화시키므로서 돌묘내에 납골단지가 안전하게 밀봉되도록 되었다.

또한 이와같이 유골을 내장시킨 돌묘의 표면에는 고인의 표석, 비문등을 표기하여 고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상기한 돌묘는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을 최소화시키고 동시에 돌묘 자체에 비문 등이 새겨진 구조로 되어 산사태 등이 발생하더라도 고인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묘지문화에 큰 발전을 기여한 사실이 있으나, 다음의 몇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다.

즉, 도 4 및 도 5 와 같이 좁은 면적에 여러 고인을 함께 봉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필요에 따라 돌묘를 서로 밀접하게 접촉시키거나 혹은 다단으로 쌓아 올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적합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고인의 납골단지를 봉합하는 구조를 밀봉력이 좋게 개선시켜 납골단지가 안정되게 봉안될 수 있도록 하고, 돌묘들이 서로 밀접하게 접촉안치될 수 있고 동시에 다단으로 쌓기가 적합한 돌묘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며, 특히 납골단지를 밀폐시키는 봉합석 자체에 비문을 새길 수 있도록 하므로서 경제성을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이하 그 구성 및 작용, 효과를 첨부된 도면을 토대로 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 및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낸 분해 사시도 및 그 단면도이다. 돌묘(1)는 육면체로서 통돌로 구성되며, 앞쪽 부분에 있어서 상하에 소정의 간격을 두고 납골단지(3)을 끼우기 위한 납골단지 봉안구멍(2)이 뚫어진다. 상기한 2개의 납골단지 봉안구멍(2)은 1기의 돌묘(1)에 부부를 봉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상부에는 남편을 하부에는 부인을 봉안하도록 된다.봉안구멍(2)내에는 오동목판(4a), 분골함(3), 오동목판(4b)이 차례로 넣어지며 납골단지(3)의 주변공간에는 천연의 방습, 방부, 방충을 위한 물질이 투입된다.

그리고, 납골단지 봉안구멍(2)의 앞쪽에는 봉안구멍(2)보다 다소 큰 직경으로 밀폐구(2a)가 뚫리고 이 밀폐구(2a)내에 봉합석(5)이 끼워져 결합된다.

한편, 상기한 봉합석(5)은 표면에 고인의 비문(6)이 새겨지며 둘레면에는 양쪽에 대칭으로 홈(7a)이 파여지고, 이에 대응하여 상기한 밀폐구(2a) 내면에도 홈(7b)이 파여지는데 이 홈(7a)(7b)들은 차후 봉합석(5)을 끼워 별도의 밀봉재(8)로 밀폐시킬 때 밀봉재(8)가 홈(7a)(7b)내에 끼워져 경화되므로서 봉합석(5)의 이탈을 방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상하 납골단지 봉안구멍(2) 사이의 공간에 고인의 사진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사진 수납부(9)가 형성된다.

그리고 돌묘(1)의 상부면은 평면으로 구성되고 여러기의 돌묘(1)를 봉안할 경우 서로 접속이 용이하도록 상부면의 테두리에 안착홈(10a)이 형성된 접속용 홀(10)이 형성되며, 이는 별도의 접속구(11)가 상기한 안착홈(10a)이 형성된 접속용 홀(10)에 끼워져 양측 돌묘(1)를 일체화로 접속시키게 되는 것이며 접속구(11)는 안착홈(10a)이 형성된 접속용 홀(10) 내부에 끼워져 외부로 돌출되지 아니하므로 차후 돌묘(1) 상부에 별도의 덮개석(14)을 덮더라도 문제가 없게 된다.

한편, 돌묘(1)는 적합하게는 화강석으로 이루어지고 봉합석(5)은 오석으로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돌묘(1)는 상기와 같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필요에 따라 도 3과 같이 구성시키므로서 밀폐구조를 더욱 안정화 시킬 수 있다.즉, 봉합석(5)과 납골단지(3)를 막고 있는 오동목판(4b)의 사이에 별도의 봉합내석(1

2)을 끼워 설치하므로서 보다 더 안정된 밀폐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제작자 및 사용자 임의로 선택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본 발명의 범주내에 속한다 할 것이다.도면 중 미설명 부호 16은 납골단지의 하부에 설치되어 납골단지를 받쳐주는 납골단지 받침석이다.

이와 같이 된 본원 발명의 축조용 돌묘(1)를 이용하여 일정한 공간에 여러 조상들을 봉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 4에서 도시한 바와같이 지상에 석정반(13)을 깔고 그 위에 돌묘(11)를 적절히 세워 봉안하되 비문(6)이 새겨진 봉합석(5)이 외부면으로 나오게 하면 되며, 필요에 따라 돌묘(1)의 상부에 덮개석(14)을 올리고 덮개석(14) 상부에 다양한 조각으로 된 조각품(15) 등을 올려 놓으면 좁은 공간에 여러 조상들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돌묘(1)의 앞쪽에는 별도의 대표적 비석, 상석, 화병, 석등 등 적절한 물품을 비치하면 되는 것이다.

더나아가서, 다단으로 세워야 할 경우에는 도 5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지면에 석정반(13)을 깔은 후 돌묘(1)를 적절히 세우고 그 위에 덮개석(14)을 씌우고 다시 덮개석(14) 위에 다른 돌묘(1)를 올려세우면 되는 것이다.물론 이때 역시 상부에 다양한 조각품(15) 등을 올려 묘소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원 발명의 축조용 돌묘는 여러기가 서로 이탈없이 밀접하게 접속될 수 있도록 안착홈이 형성된 접속용 홀이 뚫어져 있어 안정되게 접속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단으로 올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봉합석과 밀폐구에 형성된 홈내에 밀봉재가 투입되어 경화되므로 차후 봉합석의 이탈이 방지되므로 오랜 세월이 흐르더라도 납골단지를 안정되게 봉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봉합석 자체의 표면에 비문을 새길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측부의 납골단지 봉안구멍(2)내에 납골단지(3)를 넣어 봉안하고, 그 구멍(2)의 입구를 봉합석(5)으로 덮어 밀폐시킨 돌묘에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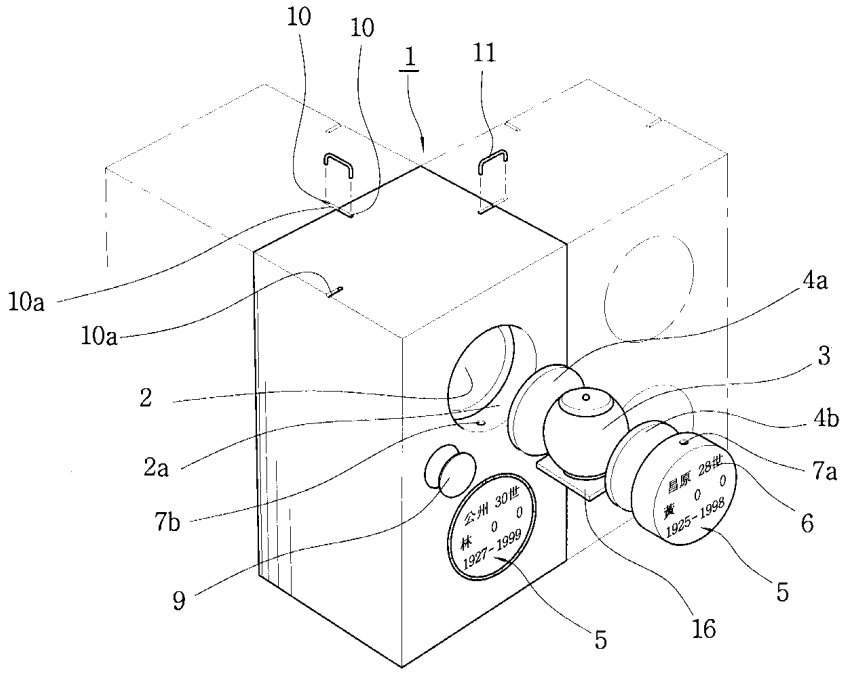
상기한 납골단지 봉안구멍(2)은 상하에 뚫어 부부를 봉안할 수 있도록 하고, 봉합석(5) 둘레면과 밀폐구(2a) 내면에 홈(7a)(7b)을 형성하여 상기 홈(7a)(7b)내에 밀봉재(8)가 투입 경화되므로서 밀폐성을 향상시키며, 봉합석(5) 자체의 표면에 비문(6)이 새겨지며, 돌묘(1)의 상부면은 평면부로 하되, 테두리에 안착홈(10a)이 형성된 접속용 홀(10)이 형성되어 별도의 접속구(11)에 의해 양측 돌묘(1)가 일체화로 결합 구축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조용 돌묘.

청구항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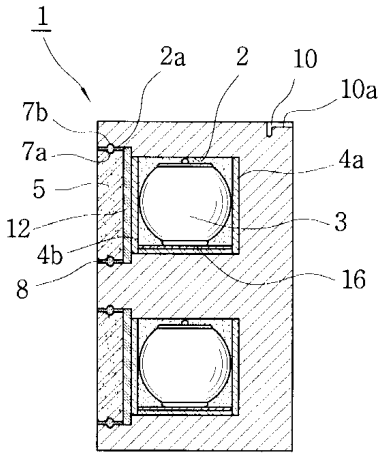
삭제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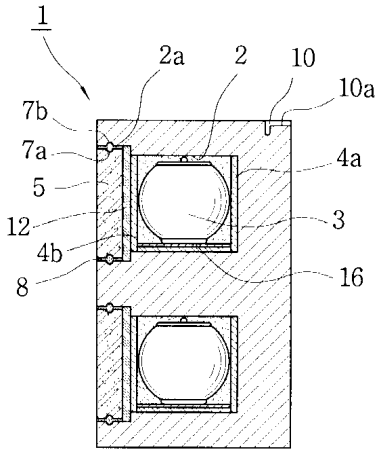
도면 1


10
10
1
11
10a
10a
2
2a
7b
9
4a
3
4b
7a
6
5
1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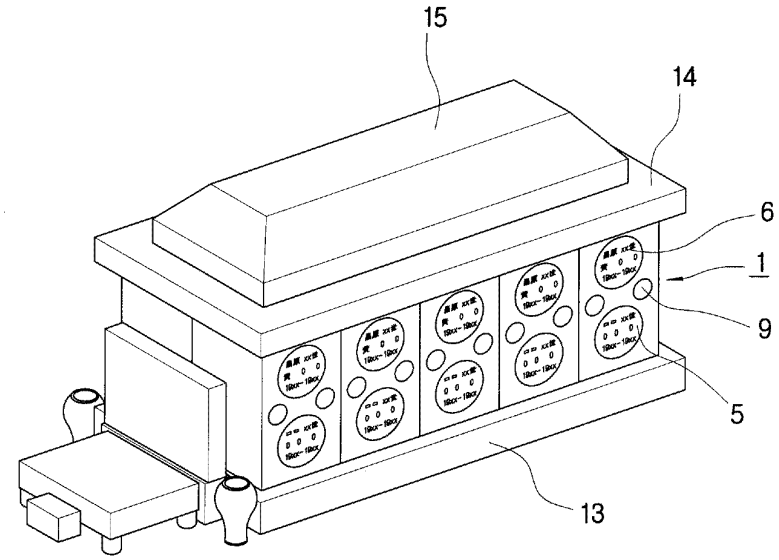
도면 2


1
2a
2
10
10a
7b
7a
5
12
4b
8
4a
3
16

도면 3



도면 4



도면 5

